

배포 2023. 4. 18.(화) 08:30 보도시점 (인터넷)2023. 4. 18.(화) 브리핑시
(지 면)2023. 4. 18.(화) 브리핑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물길을 만드는 글로컬대학

- 대학 안팎, 국내·외의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과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글로컬대학 집중 지원
- 6월 중 예비지정을 거쳐 9월 말 10개 내외 지정·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글로컬대학위원회(위원장 김중수)는 4월 18일(화),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한다.

글로컬대학위원회와 교육부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향후 10~15년이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하에 지난 3월 16일(목)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을 마련하고, 약 한 달간 공청회, 간담회, 온라인 게시판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대학과 지역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 의견수렴】

- ❖ 찾아가는 지역 공청회 총 4회(3.16. 세종, 3.20. 대구, 3.20. 부산, 3.22. 전북)
: 약 470명 현장 참석, 약 570명 온라인 생중계 참석, 유튜브 누적 조회수 약 3.8천 회
- ❖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3.15.~3.28.)
- ❖ 국공립대총장협의회, 국가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전국대학교부총장협의회,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 참석 및 의견수렴

공청회 결과, 대학 현장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여 혁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시기를 6월 중으로, 본지정 시기를 9월 말로 조정하였다.

※ (당초) 5월 중 예비지정, 7월 중 본지정 → (변경) 6월 중 예비지정, 9월 말 본지정

공청회 참석자 등은 지역대학의 위기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청했다.

이에 학과 간, 대학과 지역·산업간, 국내와 국외 간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과감한 담대한 대도약을 추진하고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을 글로벌대학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글로벌대학이 혁신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파한다. 대학이 혁신기획서를 통해 제안한 규제개혁 사항은 글로벌대학에 우선 적용하여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지역 내 대학까지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대학이 지역과 산업 수요에 맞춰 대학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지역이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며, 산학협력의 중심(허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도 집중 지원한다.

교육부는 약 5년간 약 1,0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범부처와 지자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글로벌대학을 「지방대육성법」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 대학별·연도별 예산 지원 규모는 학교 규모, 대학별 실행계획 등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각 글로벌대학은 지자체, 지역 산업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혁신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글로벌대학의 성과 또한 각 대학의 혁신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관점에서 각 대학이 산업·경제·문화 분야에서 기여한 정도 및 영향력을 분석·반영하여 공개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영향력 평가(Impact 평가) 방식을 대학 성과관리에 처음으로 도입한다.

※ 영향력 평가(Impact 평가) 핵심지표 및 분석 방식, 공개 방법 등은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안내

아울러, 글로컬대학에 대하여 매년 실행계획과 이행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3년차와 5년차에는 보다 강도 높은 성과 점검을 통해 대학의 혁신 실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실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 및 지원 중지, 필요한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까지 검토한다.

글로컬대학위원회와 교육부는 올해 10개 내외 대학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0개 내외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4월 18일(화)부터 5월 31일(수)까지 예비지정 신청서(혁신기획서, 5쪽 이내)를 접수하고, 6월 중 예비지정 대학 15개교 내외를 발표한다. 결과 발표 후 예비지정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교육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전부 공개한다. 예비지정에서 탈락한 경우라도 공개에 동의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 교육부 누리집 → 주요 메뉴 바로가기 → ‘글로컬대학’ 메뉴 개설,

글로컬대학 관련 주요 자료 게재 및 소통 채널을 통해 현장의 제안·건의사항 접수

예비지정 대학은 약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지자체,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혁신기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지자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실행계획서는 대학-지자체-지역 산업체 간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각각의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연계하여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실행 가능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학 구성원 간의 충분한 논의와 동의도 중요한 요소로, 실행계획서 제출시, 대학의 혁신 방향 및 계획에 대한 대학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글로컬대학위원회와 교육부는 실행계획서에 대한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9월 말 10개교 내외를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이의신청을 거쳐 글로컬대학 최종 지정은 10월 중 예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밀물이 모든 배를 끌어 올리듯 글로벌 대학은 지역의 모든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는 물길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글로벌대학이 학과 간 벽, 대학과 지역사회 간 벽, 해외와의 벽 등을 허물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도 과감한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중수 글로벌대학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으로부터 선택받고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려면 지역대학의 자발적인 혁신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글로벌대학위원회와 교육부는 엄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모든 대학이 인정하는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을 글로벌대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글로벌대학 비전 및 목표

【별첨】 글로벌대학 30 추진방안(확정안)

담당 부서 <총괄>	인재정책관실 지역인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소영 (044-203-6232)
		담당자	서기관	신민영 (044-203-6235)
			사무관	전주현 (044-203-6239)
담당 부서	인재정책관실 지역혁신대학지원과	책임자	과 장	박성하 (044-203-6243)
		담당자	사무관	이경은 (044-203-6248)
담당 부서	인재정책관실 고등직업교육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성근 (044-203-6415)
		담당자	사무관	유현진 (044-203-6416)
담당 부서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재정과	책임자	과 장	김진형 (044-203-6922)
		담당자	사무관	이영선 (044-203-6928)

【비전】 국가-지역-대학의 세계적 경쟁력 동반 상승

- 학과 간, 대학-지역·산업 간, 국내·외 간 벽 허물기
- 대학-지자체-지역 산업계 탄탄한 파트너십 구축
- 글로벌 수준의 대학-지역 동반 성장 모델 선도

⇒ 이를 위한 **마중물로서 글로벌대학 30교** 내외 육성

글로벌대학 :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

【대학외부】 지원 전략 혁신

① “선택과 집중” 전략

대학 혁신 성공모델 창출 지원을 통한
대학 혁신의 방향 제시

② 범부처·지자체간 장벽 없는 지원

혁신에 필요한 규제 특례,
범부처·지자체 재원 집중 지원

③ 수요자 관점의 대학혁신 지원

민간전문가(글로벌대학위원회) 주도로
계획 수립부터 지정·평가·지원 추진

④ 지능형(스마트한) 지정 및 성과관리

대학이 부담 없는 지정·관리 방식,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성과관리

【대학내부】 대학 구조·운영 혁신

① 산학·지역 협력의 중심(허브)화

지역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연구·창업 등 추진

② 대학 내·외부의 벽 허물기

학외자의 대학운영 참여 확대
지역사회와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학사 운영 및 내부 체제 개편

③ 대학 혁신 추진체계 운영

총장의 혁신 리더십 지원
지속가능한 혁신 추진체계 구축

④ 대학 성과의 투명한 공개

대학의 자율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한
성과 분석 및 대국민 공개